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성장환경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Perceived
by Early Adolescents on their Psychosocial Maladjustment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석사 유정선**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이정숙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Yoo, Jung-Seon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 Lee, Jung-Sook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n the psychosocial mal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This study also examined how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influenced early adolescents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heir problems. Four hundred and eight students from three middle schools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gender, and their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were measur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utual intimacy and respect i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affec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male students; whereas communication affecte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female students. Based on this analysis, theoretical basics were presented for educational programs to prev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주요어(Key Words) : 초기청소년(early adolescence), 심리사회적 부적응(psychosocial maladjustment), 내재화문제(internalizing), 외현화문제(externalizing)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발달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일반적으로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 다양한 문제행동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문제행동들은 청소년 자신의 건강과 신체, 심리 행동 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타인 및 사회에도 해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의 학교 폭력, 비행, 약물남용, 우울증, 자살과 같은 각종 문제들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관한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39.2%, 음주경험 55.6%, 흡연이 29.2%로 집계되었으며(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초기청소년의 자살률은 전년대비 18.9%가 증가한 것을 나타내(통계청,

* 이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주 저 자 : 유정선 (E-mail : chocodew@hotmail.com)

2002)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기 청소년기는 11세에서 14세로 매우 빠르고 급격한 생물학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여러 발달 단계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며,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성인기의 우울증, 알콜 중독, 반사회성 등의 만성적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인자라는 점에서 소홀히 여겨질 수 없다(곽금주·문은영, 2001). 그러나 이러한 초기 청소년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심각한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중·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문제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초기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크게 우울과 불안, 자살충동, 섭식장애와 같은 내재화 문제(Internalized Problems)와 타인에 대한 폭력행사, 약물 남용, 조숙한 성행위, 기타 다양한 비행 형태 등으로 표출되는 외현화 문제(Externalized Problems)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Cicchetti & Toth(1991)는 청소년의 강렬한 분노와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버려졌다는 느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외현화 문제인 비행의 경우,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 초반에 최고의 비행을 시작한 조기비행자(early delinquent)는 만성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청소년 중·후기에 비행을 시작했던 후기비행자(late delinquent)는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점차로 비율이 감소된다(Patterson, Capaldi & Bank, 1989). 이러한 사실에서 성인기의 범죄로 발전하기 쉬운 조기 비행자일수록 비행을 시작한 요인이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보다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행동적 규제의 결핍은 비행,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Barber, Olsen & Shagle, 1994)를 통하여 문제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성장환경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초기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사회심리적 부적응문제가 각 유형에 따라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성장환경이 부적응문제에 주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특정 문제행동-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 등-에 중점을 두는 국한된 것으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관한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없었으며, 여러 가지 가정환경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국한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가정환경이라는 광의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변인이 연구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의 각 부적응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

적 성장환경이 심리사회적부적응-내재화·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여기에서 도출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양육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현 시대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는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직업유무여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초기청소년의 내재화문제(불안/우울, 신체증상/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초기청소년의 외현화문제(비행,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성장환경

성장환경은 광의로는 개인의 태내성장을 포함하여 출생에서 현재까지의 성장에 관련된 모든 환경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이란 개체를 둘러싸고 개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환경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인간을 둘러싸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외적 조건과 요인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는 물리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물리적 환경은 물질적, 신체적, 경제적 조건을 뜻하며 심리적 환경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심웅철, 1992) 명확하게 양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종래의 물리적 환경의 범주에 속하던 환경적 변인을 일부 조정하여 지위환경(status environment)으로 개념화한다. 종래의 물리적 측면에 해당하는 변인과 심리적 측면에 해당하는 일부 변인은 구조환경(structure environment)으로, 종전의 심리적 환경으로 취급되어 오던 것을 과정환경(process environment)으로 분류한다(정원식, 1965).

과정환경은 가정환경 중 가족간의 심리적 과정을 말하며, 부모-자녀간의 인간관계로 볼 때 두 개의 심리적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상이다. 즉 심리적 성장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로 축약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거부, 사랑-증오, 자유-통제, 의사소통, 존경, 성취,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변화지향, 집단응집력, 물질 지향 등으로 자녀의 성장배경이 된다.

Lewin은 심리적 환경 또는 심리적 생활환경이 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개인이 취하는 행동은 물리적, 심

리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심리적 성장환경의 결과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의 행동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형성 원인을 심리적 성장환경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김현준, 2001; 남현미, 1998; 송영갑, 2000; 심우철, 1992).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서 내재화·외현화 문제와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불안정한 가정 요인들이 내재화·외현화 문제를 촉발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박경길, 1998; 윤혜영, 2000; 이민식, 1999). 즉 부부갈등은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주며(이민식, 1999), 부모 양육 형태가 부적절한 가정의 청소년은 또래 공격피해에 영향을 미쳐 외현화 문제를 일으킨다(윤혜영, 2000)는 연구결과는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성차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Harold 등은 남아와 여아가 부모 양육태도나 부부갈등의 문제와 같은 가족 내 요인에 대한 반응양식과 취약성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성차를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또 일부 연구들은 가족간의 갈등에 대해 남아의 경우는 공격성과 행동 문제를, 여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위축과 불안 증상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Cohn, 199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심리적 성장환경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남녀 집단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2.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개념과 원인

심리사회적 부적응이란 학문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들을 포함하는 교육적 상황에 있어서 알맞은 적절한 나이, 문화, 인종적 규준과 다른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수반한 장애를 의미한다. 정서문제는 외로움, 사회적 위축,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내재화 문제를 의미하며, 행동문제는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의미한다(정선훈, 2000).

초기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부적응문제를 살펴보면 이 시기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과도기 단계로 인생 주기상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과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완수해야하고, 또한 성인 생활을 위한 기반을 준비하기 위해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적 요구에도 적응해야 하므로 아동기, 청소년 후기에 비해 혼란스럽고 변화가 많은 것이라 예상된다(홍봉선·남미애, 2000). 이러한 가정은 Lamborn 등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청소년 초기의 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우울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자존감이 낮고, 부모 및 타인이 자신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각했다고 보고

했다(Lamborn, Nina,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이러한 발달상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초기 청소년은 자신의 존재 의의와 역할에 대한 혼란에 빠지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부적응문제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들의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부적응문제는 사회적 반응이란 견지에서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동문제로 나뉘거나(김희경·이정숙, 1998), 문제행동의 증후에 따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Achenbach & Edelbrock, 198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문제행동증후군을 척도화시킨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재화·외현화 문제의 분류를 사용하겠다.

1) 내재화 문제

내재화 문제는 불안, 우울, 위축, 신체화 증상 등 자기 지향적 행동을 말한다. 내재화 문제를 지닌 청소년은 슬픔에 잠기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위축되거나 수줍음이 심하고 공포감이나 환상에 빠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 쉽다. 내재화 행동은 특성상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미성숙, 회피, 두려움이나 사고를 방해하는 문제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적절히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문미영, 2000).

내재화 문제의 발달에 관하여 먼저 여러 학파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초기의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는 불안을 정신내적인(intrapsychic) 것으로 보았던 것과는 달리 이후의 신프로이드 학파는 불안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ubin과 Mills는 내재화 문제 발달의 한 경로로서 개인이 가진 기질적 사전 경향성과 부모와의 사회화 경험과 어떤 조건(심리 사회적)의 상호작용을 가정하였다. 기질적 각성은 자녀를 달래고 편안하게 하는데 부모를 덜 민감하고 덜 반응적으로 만들어서 양육행동을 어렵게 하고, 자녀는 불안한 애착의 발달로 환경에 대해 덜 탐색적이 되고 특히 새로운 상황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의 어려움과 무력감을 감지하여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거나 과업을 넘겨받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과잉 통제와 과잉 개입은 실제로는 그 후에 무력감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Rubin & Mills, 1991).

따라서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외현화 문제

외현화 문제는 억압된 감정의 행동화, 공격행동 등으로 외부로 명확히 나타나는 행동을 나타내며, 이는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Patterson은 어린 시기의 외현화 문제의 발달에 특히 가족 상호작용 패턴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억압적인 가족 상호작용과정에서 부모는 거칠고, 처벌적인 방식으로 자녀와 의사소통하고 자녀의 주요한 욕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적대감을 부적적으로 강화시키고 모델링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공격성을 촉발하고 유지시킨다고 볼 수 있다(Patterson, Capaldi & Bank, 1989).

Sroufe는 외현화 문제의 발달 경로를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한 가지는 생물학적 요인 경로로 뇌의 이상 발달 같은 것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동의 필요에 둔감한 양육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즉 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소인을 가진 유아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세상을 탐색하는 방식을 충동적인 방식으로 형성할 때 주의력 결핍장애가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Sroufe, 1989).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제시한 외현화 문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의 반사회적 장애의 유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가족 상호 작용에서 비수용성과 적대감을 들 수 있다(장은경, 2000).

따라서 외현화 문제의 발달은 기질적인 사전 경향성과 부모의 촉발 요인이 함께 영향을 주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초기 청소년기 내에서 학년에 따른 내재화 · 외현화 문제 행동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김혜영, 2000)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중학교 3곳(남자 중학교 1개교, 여자 중학교 1개교, 남녀 공학 1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 230명, 여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한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성장환경 척도

심리적 성장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심용철(1989)이 제작한 심리적 성장환경 질문지(PGES)를 심용철(1992)이 다시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요인은 수용-거부, 사랑-중요, 자유-통제, 의사소통, 존경, 성취, 상호역할기대, 상호친밀, 변화지향, 집단응집력, 물질지향, 전통고수 등 총 12개로 전체 74문항을 5점 척도 상에서 반응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는 총 74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점수를 주었으며, 심용철(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3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심리적 성장환경 질문지 하위요인 및 신뢰도 계수

| 하 위 요 인 | 신뢰도 계수 |
|---------|--------|
| 수용 | .79 |
| 사랑 | .79 |
| 자유 | .78 |
| 의사소통 | .73 |
| 존경 | .88 |
| 성취 | .85 |
| 상호역할기대 | .63 |
| 상호친밀 | .76 |
| 변화지향 | .84 |
| 집단응집력 | .79 |
| 물질지향 | .74 |
| 전통고수 | .78 |

2) 청소년용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Youth Self-Report(Thomas M. Achenbach, 1991)를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가 한국어판으로 2001년에 제작한 청소년용(K-YSR)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미국판 조사표(YSR)을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한국판 문제행동조사표이다. K-YSR은 사회적응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사회능력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행동 척도(Behavior Problem Scale)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능력척도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문제행동 척도만을 사용한다. 사용된 문제행동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와 비행, 공격성으로 구성된 외현화 문제로 분류되며 그 하위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재화 문제 척도(Internalizing Problems):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적 증상 등 내재화되고 과잉 통제된 행동(overcontrolled behavior)을 평가하는 척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62점이다.

① 불안/우울 척도(Anxious/Depressed):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한다 등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를 평가하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32점이다.

② 신체증상 척도(Somatic Complaints): 어지러워한다, 몸이 쑤시고 아프다, 두통 등 의학적 증거가 없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평가하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8점이다.

③ 위축 척도(Withdrawn):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수줍어한다 등 사회적인 위축, 철수, 소극적 태도 등을 평가하는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4점이다.

(2) 외현화 문제 척도(Externalizing Problems):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행동(undercontrolled behavior)을 평가하는 척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66점이다.

① 비행 척도(Delinquent Behavior):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가출한다 등 비행행동을 평가하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22점이다.

② 공격성 척도(Aggressive Behavior): 말다툼을 자주 한다,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등 공격성, 싸움, 반항 행동 등을 평가하는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38점이다.

청소년용 행동평가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각 문항별로 .63에서 .85까지 분포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용 자기 행동 평가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계수 및 문항내용

| 하위요인 | 신뢰도계수 | 문항내용 |
|--------|-------|---------------|
| 내재화 문제 | .77 | 불안/우울+신체증상+위축 |
| 불안/우울 | .82 | . |
| 신체증상 | .84 | . |
| 위축 | .73 | . |
| 외현화 문제 | .71 | 비행+공격성 |
| 비행 | .76 | . |
| 공격성 | .81 | .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하기 전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2003년 5월 2일에 실시하였다. 대상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각 25명의 남녀학생으로 하여 수거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신뢰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제기된 설문지 문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2일에 걸쳐 본 조사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수거된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Window용 SPSS 11.0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기법으로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08명의 대상 중에서 남아가 198명(48.5%), 여아가 210명(51.5%)이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으며(87.3%), 어머니의 연령의 연령 또한 40대가 가장 많았다(73.5%).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20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가 32.8%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에서 199만원 사이가 22.1%, 300만원에서 399만원 사이가 19.1%, 400만원 이상이 15.9%, 100만원 미만은 10.0%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통계청(2003)의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4분기 도시 근로자 월 평균경상소득이 280만원으로 보고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가정 중에서 이 범위에 속하는 집단은 전체 대상자중 약 48.9%로, 본 연구의 대상 가정이 우리나라 전체 도시 가구를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력 분포는 아버지의 경우 고졸(51.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졸이상(40.7%), 중졸(5.1%), 초등학교 이하(2.5%)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도 고졸(65.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졸(24.8%), 중졸(8.3%), 초등학교 이하(1.5%)의 순이었다. 통계청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에 의하면,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고졸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졸이 15.3%, 초등학교 졸업이 14.7% 순이었다. 통계청(2000)의 자료는 전국적인 표집이며 6세 이상의 인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40~50대 성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부모 집단은 전국 분포에 비해서 학력이 다소 높은 집단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108명(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이 101명(24.8%), 전문직 40명(9.8%), 서비스업 21명(5.1%), 관리직 13명(3.2%), 노무직 11명(2.1%) 등 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189명(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 42명(10.3%), 서비스업 36명(8.8%), 전문직 28명(6.9%), 서비스업 36명(8.8%), 관리직 2명(0.5%), 노무직 3명(0.7%) 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408사례의 연구대상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요약하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2세의 연령으로 초기 청소년기에 속하며, 성별비율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여아가 다소 많은 편이다. 부모들의 경우 4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전국 분포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었고, 부모의 학력 또한 다소 높은 편이었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문제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량분석

| 문제 | 주요변인 | | N | Mean | SD | F/t |
|-----|-----------|---------|-----|-------|-------|----------|
| 내재화 | 부 교육수준 | 초등학교 | 10 | 11.70 | 7.00 | .855 |
| | | 중졸 | 21 | 18.19 | 11.09 | |
| | | 고졸 | 211 | 15.57 | 10.53 | |
| | | 대학교 | 166 | 15.77 | 11.47 | |
| 외현화 | 부 교육수준 | 초등학교 | 10 | 13.40 | 6.48 | .122 |
| | | 중졸 | 21 | 13.14 | 5.92 | |
| | | 고졸 | 211 | 13.65 | 8.12 | |
| | | 대학교 | 166 | 13.41 | 8.62 | |
| 내재화 | 모 교육수준 | 초등학교 | 6 | 16.00 | 11.15 | .068 |
| | | 중졸 | 34 | 15.17 | 10.01 | |
| | | 고졸 | 267 | 16.93 | 10.72 | |
| | | 대학교 | 101 | 15.55 | 11.69 | |
| 외현화 | 모 교육수준 | 초등학교 | 6 | 12.33 | 6.97 | .726 |
| | | 중졸 | 34 | 14.97 | 8.27 | |
| | | 고졸 | 267 | 13.06 | 7.39 | |
| | | 대학교 | 101 | 13.90 | 10.02 | |
| 내재화 | 소득수준 | 100만원 | 41 | 17.90 | 9.82 | .949 |
| | | 100-200 | 90 | 14.22 | 9.52 | |
| | | 200-300 | 134 | 15.77 | 10.94 | |
| | | 300-400 | 78 | 16.63 | 11.32 | |
| | | 400만원 | 65 | 15.77 | 12.53 | |
| 외현화 | 소득수준 | 100만원 | 41 | 13.85 | 7.95 | .769 |
| | | 100-200 | 90 | 12.20 | 6.29 | |
| | | 200-300 | 134 | 13.41 | 8.63 | |
| | | 300-400 | 78 | 14.24 | 9.05 | |
| | | 400만원 | 65 | 13.84 | 8.61 | |
| 내재화 | 모직업 | 전업주부 | 219 | 16.17 | 11.06 | .796 |
| | | 직업여성 | 189 | 15.31 | 10.68 | |
| 외현화 | 모직업 | 전업주부 | 219 | 13.44 | 8.05 | .075 |
| | | 직업여성 | 189 | 13.38 | 8.34 | |
| 내재화 | 성별 | 남 | 198 | 14.32 | 9.94 | -2.654** |
| | | 여 | 210 | 17.15 | 11.56 | |
| 외현화 | 성별 | 남 | 198 | 13.08 | 8.19 | -.798 |
| | | 여 | 210 | 13.73 | 8.17 | |

*p<.05, **p<.01, ***p<.001

시한 결과, 초기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고(F=.855, p>.05, F=.122, p>.05), 소득수준에 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F=.949, p>.05, F=.769, p>.05).

또한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F=.796, p>.05, F=.075, p>.05). 이는 자녀의 인성, 정서, 성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취업주부의 자녀들이 전업주부 자녀들보다 뒤떨어진다는 연구가 많다(중앙일보, 2002)는 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모의 취업여부 외의 통제되지 않은 변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남녀의 성장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내재화 문제를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2.654, p<.01), 이는 대상의 연령 특성상 초기 청소년기가 되면서 여아에게서 정서 및 기타 정신

병리가 갑자기 증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내재화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안동현, 2000)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내재화·외현화문제의 변량분석을 통해서 남녀의 성별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후에 남녀 집단의 구분을 두어 결과를 얻고자 한다.

3.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심리적 성장환경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문제가 심리적 성장환경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을 예언하는 의미 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라 심리적 성장환경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남녀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심리적 성장환경이 내재화문제(불안·우울/신체증상/위축)에 미치는 영향

〈표 2〉에서는 심리적 성장환경이 남자청소년의 내재화문제(불안·우울/신체증상/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리적 성장환경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표 3〉에서는 여학생 집단을 살펴보았다.

〈표 4〉 심리적 성장환경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남학생 집단)

| 종속변인 | step/변인 | Beta | R ² | (Adjusted R ²) | F |
|-------------|------------|---------------|----------------|----------------------------|--------------------|
| 내재화문제 총점 | 상호친밀 | -.335 | .112 | .107 | 24.713*** |
| | 상호친밀 | -.272 | .149 | .145 | 34.403** |
| | 존경 변화지향 | -.220 .145 | .169 .189 | .161 .177 | 19.894* 15.087* |
| 신체증상 | 존경 | -.153 | .023 | .018 | 4.683* |
| 위축 | 의사소통 | -.362 | .131 | .127 | 29.533*** |

*p<.05, **p<.01, ***p<.001

먼저 남학생의 내재화 문제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본 경우, 심리적 성장환경 중 상호친밀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내재화문제를 11.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4.713, p<.001). 하위 변인인 불안·우울에는 상호친밀이 14.9%를 설명하고(F=34.403, p<.01), 존경이 추가로 2%(F=19.894, p<.05), 변화지향은 2%를 설명하였다(F=15.087, p<.05). 신체증상을 종속변인으로 놓았을 때 존경이 분산의 2.3%를 설명(F=4.683, p<.05)하였으며,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본 경우, 의사소통만이 분산을 설명하는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설명력은 13.1%였다($F=29.533, p<.001$) (표 4).

즉 전반적인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호친밀이며, 각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호친밀과 존경이 남자 초·중·고등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심리적 성장환경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여학생 집단)

| 종속변인 | step/변인 | Beta | R ² | (Adjusted R ²) | F |
|----------|---------|-------|----------------|----------------------------|-----------|
| 내재화문제 총점 | 의사소통 | -.400 | .318 | .314 | 96.872*** |
| | 변화지향 | .172 | .342 | .336 | 53.880** |
| | 상호친밀 | -.232 | .357 | .347 | 38.080** |
| 불안·우울 | 의사소통변 | -.591 | .311 | .307 | 93.700*** |
| | 화지향 | .170 | .338 | .332 | 52.898** |
| 신체증상 | 의사소통 | -.289 | .204 | .200 | 53.392** |
| | 사랑 | -.215 | .224 | .216 | 29.804* |
| 위축 | 의사소통 | -.461 | .251 | .247 | 69.556*** |
| | 상호역할 | -.141 | .269 | .262 | 38.112** |

* $p<.05$, ** $p<.01$, *** $p<.001$

여학생 집단의 경우 내재화 문제(불안·우울/신체증상/위축)을 종속변인으로 본 경우, 의사소통, 변화지향, 상호친밀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내재화 문제 변산을 의사소통이 31.8% ($F=96.872, p<.001$) 설명하며, 변화지향이 추가로 2.4% ($F=53.880, p<.01$), 상호친밀이 추가로 1.5% ($F=38.080, p<.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우울에서는 의사소통이 31.3% 설명하는 것($F=93.700, p<.001$)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지향을 추가하였을 경우에는 2.7%의 유의미한 설명량의 변화가 있었다($F=52.898, p<.01$). 신체증상에서는 의사소통이 변산의 20.4%를 설명하며 ($F=53.392, p<.01$), 사랑이 추가적으로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9.804, p<.05$). 위축에서는 의사소통이 25.1%의 설명력을 가지며($F=69.556, p<.001$), 상호역할이 여학생 집단의 위축 변산의 1.8%를 추가로 설명하였다($F=38.112, p<.01$) <표 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요인들이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불안·우울/신체증상/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집단별로 각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남학생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호친밀과 존경이라는 심리적 성장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불안·우울은 변화지향적인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의 경우 가족간의 친밀함과 부모에 대한 존경이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활발한 성장환경에서 자란 경우 위축의 문제를 덜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는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공통요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남학생 집

단과는 다르게 사랑, 상호역할 등의 요인이 내재화 문제를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의 경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신체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남녀간의 각각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자집단과 유사하게 변화지향적인 환경은 내재화 문제 특히 불안·우울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2) 심리적 성장환경이 외현화 문제(비행/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성장환경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심리적 성장환경을 예언변인으로 외현화 문제(비행/공격성)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결과가 남녀 집단별로 표6와 표7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심리적 성장환경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남학생 집단)

| 종속변인 | step/변인 | Beta | R ² | (Adjusted R ²) | F |
|-----------|---------|-------|----------------|----------------------------|-----------|
| 외현화 문제 총점 | 상호친밀 | -.274 | .129 | .125 | 29.133** |
| | 존경 | -.176 | .148 | .139 | 16.926* |
| 비행 | 상호친밀 | -.326 | .128 | .123 | 28.693** |
| | 존경 | -.203 | .149 | .140 | 17.053* |
| | 물질지향 | .178 | .171 | .158 | 13.340* |
| 공격성 | 상호친밀 | -.318 | .101 | .097 | 22.084*** |

* $p<.05$, ** $p<.01$, *** $p<.001$

남학생 집단의 경우 외현화 문제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본 경우 상호친밀과 존경이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설명력은 14.8%였다($F=16.926, p<.05$). 이 중 상호친밀의 설명력은 12.9%였고($F=29.133, p<.01$), 존경은 나머지 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은 상호친밀이 12.8%의 설명력을 가지며($F=28.693, p<.01$), 존경이 추가적으로 2.1%($F=17.053, p<.05$), 물질지향이 2.2%($F=13.340, p<.0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친밀은 공격성을 10.1%($F=22.084, p<.00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여학생 집단의 경우 외현화 문제 변인의 변산을 설명하는 모형에 의사소통과 성취가 포함되었다. 외현화 문제 총점은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21.5%였으며($F=56.809, p<.001$), 성취는 2%($F=31.715, p<.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서는 의사소통이 22.6% 설명하며($F=60.765, p<.001$) 물질지향이 1.9%($F=33.598, p<.05$), 존경이 2%를 추가로 설명한다($F=24.803, p<.05$).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보았을 때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16.3%($F=40.379, p<.001$)이며, 성취가 1.9%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3.042, p<.05$) <표 7>.

<표 7> 심리적 성장환경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여학생 집단)

| 종속변인 | step/변인 | Beta | R ² | (Adjusted R ²) | F |
|-------------|---------|-------|----------------|----------------------------|-----------|
| 외현화문제 총점 | 의사소통 | -.417 | .215 | .211 | 56.809*** |
| | 성취 | .149 | .235 | .227 | 31.715* |
| 비행 | 의사소통 | -.386 | .226 | .222 | 60.765*** |
| | 물질지향 | .182 | .245 | .245 | 33.598* |
| | 존경 | -.237 | .265 | .265 | 24.803* |
| 공격성 | 의사소통 | -.357 | .163 | .159 | 40.379*** |
| | 성취 | .147 | .182 | .0174 | 23.042* |

*p<.05, **p<.01, ***p<.001

여학생 집단의 경우 외현화 문제 변인의 변인을 설명하는 모형에 의사소통과 성취가 포함되었다. 외현화 문제 총점은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21.5%였으며(F=56.809, p<.001), 성취는 2%(F=31.715, p<.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서는 의사소통이 22.6% 설명하며(F=60.765, p<.001) 물질지향이 1.9%(F=33.598, p<.05), 존경이 2%를 추가로 설명한다(F=24.803, p<.05).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보았을 때 의사소통의 설명력은 16.3%(F=40.379, p<.001)이며, 성취가 1.9%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3.042, p<.05)(표 7).

위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내재화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성장환경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녀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내재화 문제와 유사하게 상호친밀과 존경이라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하위요인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특징적인 것으로는 외현화 문제의 하위요인 중 비행은 물질지향적인 환경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인간의 가치나 관계보다 물질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성장할 경우에 그에 대한 욕구나 행동이 강해짐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에서도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던 의사소통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물질 지향적 환경에서 자란 경우 비행성향을 가진다는 결과는 남학생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의 원인 또한 남학생 집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성취가 공격성과 외현화 문제에 각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성차는 성취를 강요하는 양육태도가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자율성을 저해하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외현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 성취의 강요가 외현화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사회에서 남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이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언어 및 신체적 공격성을 강조하고 성취, 문제해결, 개인적인 통제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풍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남자의 경우 성취를 강요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남성성의 계발로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예방을 목적으로, 이들이 지각한 심리적 성장환경이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문제는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직업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라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빈곤가정의 아동의 경우 물질적 빈곤에 의한 욕구 불만, 갈등이 생겨 행동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다(김희경, 이정숙, 1998)는 이론과는 부합되지 않는 결과로, 이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초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성장환경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자집단의 경우에는 상호친밀과 존경이 대표적인 공통요인으로, 여자집단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변화지향이 공통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녀의 특성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남학생집단에서는 부모에 대한 존경, 친밀한 관계가 보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여학생집단에서는 여성의 표현적인 역할이 전통적인 성역할인 만큼 이러한 기능에 부합하는 의사소통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성장환경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자집단의 경우에는 상호친밀과 존경이, 여자집단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성취가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에서 물질지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의 가치나 관계보다 물질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성장할 경우에 그에 대한 욕구나 행동이 강해짐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남학생집단의 내재화 문제·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부모에 대한 존경은 학칙위반 남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집단 치료프로그램에서 지도자와의 동일시가 가장 큰 치료요인으로 나타났다(전숙영, 2003)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 성장환경이 초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성장환경 내 요인이 남녀 집단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이것은 남녀의 구분 없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부모교육 및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 청소년들이 임상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정상군의 청소년들이었으며,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편부모 가족이나 임상적 문제가 심각한 청소년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과 임상적인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물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이후 성인기의 건강한 삶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심리적 성장환경이 초기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 역할과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01일

【참 고 문 헌】

- 박금주·문은영(2001).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30.
- 김현준(2001).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경·이정숙(1998). *문제아 임상심리학*. 교문사.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미영(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길(1998).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갑(2000). *부모-자녀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녀의 자아정체감 및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웅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동현(2000). *아동정신 병리학*. 미간행.
- 윤혜영(2000).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은경(2000). *외현화·내현화 장애 집단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치료를 위한 소시오드라마의 집단발달과정 및 치료요인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선혜(2000). *초기청소년의 친구관계 및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65). *자아개념 검사*.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중앙일보(2002). *전업주부 VS 취업주부-국내의 학술논문 분석결과*. 2002-9-6. 10면.
-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 통계청. www.nso.go.kr
- 홍봉선·남미애(2000).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 Achenbach, T. M. & Edelbrock, C.(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ng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Cicchetti, D. & Toth, S. L.(1991).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isfunction. In I. A. Greenberg(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319-324)*. Hillsdale NJ. Erlbaum.
- Cohn, L. D(1991). Sex differences in the course of personality develop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9, 252-266.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1997, 33, 333-350.
- Lamborn, S., Nina, S., Mounts, Steinberg, L. & Dornbusch, S.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 Patterson, G. R., Capaldi, F. & Bank, L.(1989).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on delinquency. In D.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139-168)*.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 Mills, R. S. L. (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3, 300-317.
- Sroufe, L. A.(1989). *Emotional Dvelopment*. New York: Wiley.